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

작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PC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정도로 거대한 사건의 신험탄이었다. 이후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은 마치 쓰나미처럼 대부분의 이슈를 삼켜 버렸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앞에서 어지간한 뉴스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유탄을 제대로 맞은 곳이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이다. 2016년 3월 미쉐린 코리아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의 발간을 공식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과 외식업계는 술렁거렸다. 1900년 프랑스의 타이외회사인 미쉐린에서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여행 정보지로 출간을 시작한 미쉐린 가이드는 1926년부터 레스토랑 평가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로 인정받고 있다. 예정대로 미쉐린 가이드가 발간될 경우 한국음식은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한 기준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는 기회가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전통적으로 미쉐린 가이드는 평가원, 평가 대상, 평가 과정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 자연스레 소문과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과연 몇 개의 별을 받을지, 어떤 음식점들이 선정될지, 그리고 한국음식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일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정작 작년 11월 7일 그 실체가 공개되었을 때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은 여론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순전히 최순실 때문이었다. 나라 꼴이 엉망인데 음식적 평가서 따위에 관심을 가질리 만무했다. 비단 최순실 때문이 아니라도 미쉐린 가이드는 유럽 중심의 평가 기준, 지나친 상업성 등으로 예전에 비해 그 권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다. 특히 서울 편은 경우 문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식재단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이 광고를 게재하면서 미쉐린 측과 광고비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의혹은 증폭되었다.

사실 이런 논란은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그 본질만 놓고 보면 출판사다. 보다 많은 가이드북을 판매함으로써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미쉐린 가이드는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드는 가이드북이다. 미쉐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쉐린의 평가원(Inspector)은 호텔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해마다 30,000Km가 넘는 여행을 하며, 160여 곳의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260여 곳의 음식점을 평가한다. 한 음식점을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하고 식사하는 직접 계산한다. 이를 위해 평가원 한 명이 1년에 쓰는 돈이 최소 1억5천만 원 이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100명의 평가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쉐린은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해 가이드북의 판매 부수를 늘려야 하고, 광고도 실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유치해야 한다. 그런 가이드북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국정 농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순실의 말을 믿는 것만큼이나 순진한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의 발간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여론조사 가 여론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지만 여론의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듯, 미쉐린 가이드 역시 그와 유사한 기준에서 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

미쉐린 가이드에 실리는 음식점들 가운데 비중이 있는 평가 항목은 ‘미쉐린 스타’와 ‘빔 구르망’이다. 미쉐린 스타는 선정된 음식점에 1개~3개의 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평가원들은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에 대한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미쉐린 100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 서울 편은 경우 13만7천여 곳에 이르는 음식점 가운데 단 24곳만 하나 이상의 별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13곳이 한국음식점으로 분류된다.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만큼 미쉐린

스타 음식점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대중의 입장에서 미쉐린 스타보다는 빔 구르망이 오히려 흥미롭다. 빔 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부여하는 명칭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물가와 연동해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 유럽은 35유로, 일본은 5천엔, 미국은 40달러 이하이며 서울은 3만5천 원 이하로 정해졌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미쉐린 스타가 글로벌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빔 구르망은 해당 국가의 지역성과 대중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서울 편은 경우 선정된 36곳의 음식점 가운데 무려 32곳이 한국음식점이다. 냉면과 칼국수 전문점이 각각 5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두(4곳), 족발(3곳) 전문점이 선정되었다. 심지어 생태탕, 순두부, 추어탕 전문점까지 망라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저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에서 선정된 음식점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음식점으로 전혀 손색없다. 따라서 올 여름휴가 또는 서울 여행 때 오묘한 가이드로 활용할 만하다. 굳이 책을 구입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 각국답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편 홈페이지(https://guide.michelin.co.kr). <맛 칼럼니스트>

社說

병원들, 장애인 학생 건강검진 꺼린다니

장애인 학생들이 건강검진 병원을 구하지 못해 제때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병원들이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단체 건강검진을 꺼리는 탓에, 특수학교 교사들이 검진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광(지적장애)·선명(지적장애)·선우(지적, 청각장애)·세광(사각장애)·은혜학교(지체장애) 등 광주 지역 특수학교 학생 수는 795명이며, 이 중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240명이다. 현행법상(학교 건강검사 규칙) 일반학교 건강검진은 지난 2008년 이후 출장 검진에서 방문 검진으로 바뀌었지만 특수학교는 출장검진이나 방문검진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다.

각급 학교는 매년 초등학생 1학년과 4학년, 중·고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시각·청각·X-레이·채혈 등 신체검사를

한다. 일반학교들은 특정 병원을 검진 의료기관으로 정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은 해마다 장애인 학생들의 건강검진 병원을 찾는 데 애를 먹는다.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 학생의 경우 X-레이 촬영 등 검진 과정에서 여러 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한 데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 병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진 대상 학생 수가 기준 선인 50명에도 못 미치는 점도 장애인 학생 단체 검진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장애는 차별의 대상이 아닌 배려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서글프다. 시와 교육청은 낮은 환경에서의 건강검진이 고액인 장애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병원의 출장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 학생과 똑같이 책정된 장애인 학생의 검진 비용을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너무 늦어 공허하게 들린 안철수의 사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다”며 사죄했다. 다만 증거 조작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그는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유미 씨가 조작한 증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당시 저는 무척이 유세 중이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

다. 그는 다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정계 은퇴까지 고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안 전 대표는 이미 대표직이나 국회 의원직도 다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견은 매우 공허하게 들렸다. 실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말 뿐’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결국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고 다량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한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앞으로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없는 한 국민의당이라는 존재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 전 ‘김넛과’에 다녀왔다. 병원은 아니다. 지난달 말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다. ‘김넛과’는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진료를 했던 ‘김내과’ 건물을 그대로 활용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페인트칠을 한 4층짜리 건물은 어디서든 금방 눈에 띈다. 지하 1층은 갤러리다. 매끈한 마감재 대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붉은 벽돌과 기둥은 그대로 살렸다. 1층은 카페와 테라스, 2층은 예술 그룹 ‘미테 우그로’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김넛과’와 목욕탕 카페

조선대 후문 인근에 문을 연 카페 ‘리프(Re:f)’는 목욕탕을 개조한 공간이다. 28년 동안 ‘광산대중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던 곳으로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건물이었다.

‘1913 송정역 시장’에 참여했던 윤현석 대표는 사람의 손길, 시간이 지나간 공간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입욕권을 받던 매표소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 ‘당기시오’라는 글귀가 써진 문도 그대로다. 목욕탕 대기실의 높은 천장에 놓여 있던 낡은 TV, 목욕탕 벽면 타일도 옛 모습 그대로다. 여기에 현대 미술 관련 책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작은 북카페와 전시장으로도 활용된다. 3층은 6개의 아트호텔이다. 병원의 병실 하나하나가 멋진 숙박 공간으로 변신한 셈이다.

공간을 오픈한 영무건설 박헌택 대표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건물의 역사성을 살려 리모델링을 택했다. 학창시절 ‘김내과’에 자주 다녔다는 선배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걸 알고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문화기획단체 (주)컬처네트워크가 적은 느낌의 공간 디자인을 결합했다. 목욕탕은 커뮤니티의 공간이었다. 요즘엔 카페가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장소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강좌를 진행하는 공간과 사무실로 쓰고 있다.

옛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매일매일 세워지고 있는 요즘이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멋진 신축 건물에도 눈을 돌리지만 ‘스토리와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도 환호한다. 슬한 느낌이 담긴 오래된 여관·창고 등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하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조 안 영 조안성형외과 원장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졌다. 모니터에는 확연히 개선된 환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술 결과는 주관적인 면이 많다. 자기 마음에 들면 잘된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의 경우,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 환자는 “선생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 주세요” 라고만 말을 했었다. 가장 무서운 말이다. ‘네’가 ‘네’ 판단으로 최선을 다해봐, 대신 맘에 안 들면 다 ‘네 맞’이야, 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의 대화는 40여 분이 지나도록 위의 내용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방향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다. 입에 단내가 나고, 어느덧 대기실엔 환자들이 밀리기 시작했다. 술을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입을 닫았다. 한참 동안 불평을 쏟아내던 환자도 말수가 줄어들면서, 목소리까지 잦아들었다. 결국, 침묵이 시작됐다. 침묵 속에서 환자의 상담부터 수술 당일 상담, 수술과정, 소독과 실밥을 빼던 과정 등이 모두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환자는 5분여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대화를 시작한 환자의 입에선 예상 외로 본인의 가정사가 새어 나왔다. 집안에 어떠한 일 때문에 환자는 지난 몇 주일 동안

불편한 밤을 보냈고, 심적으로 황폐화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러던 차에 같이 수술받은 친구가 건넌 ‘눈이 빨갛게 보인다’는 한마디에 그녀의 분노가 수술한 의사에게로 전이된 것이다. 나로서는 억울할 뿐이었다. 여기서 난 내 무고함이나 나의 억울함, 또는 의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 또한 의사의 몫이라 생각한다.

환자와 내가 그날 대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술이나 그 수술에 대한 결과가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해결책은 거기서 찾을 수 없다. 환자의 주변 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를 내가 알긴 어려운 일이다. 나는 환자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몇 달 후에도 맘에 들지 않으면 그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그 뒤로 환자는 재방문하지 않았다.

성형외과 전문의사로 무엇이든 고칠 수도 있는 의욕이 앞서던 젊은 시절의 진로 경험담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상담할 때 환자를 주위 깊게 살펴본다. 비이성적인 기대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상담 내용을 이해하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기대치가 이성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차피 수술로 환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상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수술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수술 후 환자의 불만족은 거의 없다.

꽤 많은 시간을 환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관찰하고 상담하다 보니, 이제는 숙련표현으로 ‘의사 반, 무당 반’이 된 듯하다.

환자의 직업부터 스트레스 여부, 시력이 난시인지 근시인지, 편두통을 앓고 있는지, 얄드려 잘 때 고개를 어느 쪽으로 기울이는지, 어느 쪽이 상태가 좋지 않은지,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지 등도 대중진작할 수 있다.

자질구래한 삶의 역사는 근육과 주름의 형태로 얼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든지, 몸은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최고의 성형수술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잦은 눈웃음으로 생긴 서글거림한 눈가의 주름은 어떤 성형수술로도 만들지 못한다.

분재처럼 옅은 세월 만들어진 아름다움도 있지만, 바람 부는 절벽에 매달린 소나무면 어떤가? 의재 허백련이 그린 소나무는 가지치기하나 하지 않아도, 허나갈이 기쁨 있고 멋져 보인다. 그러나 잘 살 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 다이어리 첫 장에 적어 놓은 글귀를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다. ‘행복은 마음가짐이지 목적일 수 없고, 신뢰와 정의로움은 행복을 양보해서라도 지켜야할 인간된 도리다’.

기 고



최 정 학 (주)가나다 통일치킨팩토리 대표 2017 대한민국 신지식인

상생과 소통의 언어를 위한 제언

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확장성이 낮은 사회적 폐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언어가 곧바로 일상 생활에 여과 없이 쓰임으로써 우리 사회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심지어 사회 이슈 소재를 왜곡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언어 훼손 문제까지 겹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구세대쯤으로 낙인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어져 갈등의 소재로 악용되고도 한다.

요즘 일명 인터넷 통신체라 불리는 글로 쓰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심지어 대학생들의 리포트(Report)에서조차 통신체가 난무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수와 학생 간에 논쟁이 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곤 한다. 지나친 비약일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는 후손들과 언어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나 정치권마저 정체되지 않은 통신체 언어를 문제의식 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정서를 고려한 용어 선택은 모든 정책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햇볕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던 사실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 기반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적 적대감 또는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기급적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참다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져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재벌 개혁, 재벌 규제라는 용어는 자칫 기업의 성장 동력을 억누르고 기업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독트린으로 읽힐 수 있다. 또 기업의 불합리한 경제활동이나 불공정성의 감시 기능이나 개선의 범위를 넘어 국가가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글로벌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건전한 기업활동마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벌 개혁’을 ‘기업의 변화’로 ‘재벌 규제’를 ‘기업의 건전성 강화’로 바꿔 부르는 노력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해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정책적 용어가 끼치

는 영향이 상당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류독감(AI)의 경우, 닭고기를 먹으면 독감에 걸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고열로 조리할 경우 인체에 무해하며 식품으로서도 충분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무조건 식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작용은 농가와 관련된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태의 원인이 됐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소비 촉진을 위한 식의치 등을 펼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홍보하였음에도 ‘뫼비우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성을 가진 계층이 어우러져 구성되는 국가공동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국가 통합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부보다 솔선수범하며 대통령 스피크를 탈권위와 소통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기존의 정책적·사회적 용어와 관련, 더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하고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기피함으로써 참다운 사회 통합의 기초를 다듬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